2021년 7월 25일 7-30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선교주일
선교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37:9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예 배 WORSHIP

July 25, 11:30 am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주일예배

사역과 행사

하나님 앞으로

찬 송 / 486장 - 내 맘의 소망 되소서 / 1, 3-4, 3절

예배기도 / 구은강 집사

주님 가르치신 기도

헌신과 나눔

찬 송 / 368장 - 주 예수여 은혜를 / 1, 3-5절
(통일찬송 486장)

봉 헌 / 최선윤 집사, 구 민 집사

* 봉헌찬송 / 213장 - 나의 생명 드리니 / 4절
(통일찬송 348장)

말씀과 결단

찬 송 / 354장 - 주를 앙모하는 자 / 1, 4 절
(통일찬송 394장)

성경말씀 / 아모스 5:4-11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삶과 세상으로

찬 양

*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 섭니다

예배시간 10분전 휴대전화 점검과 묵상으로 준비합시다.
진정한 예배는 교회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 됩니다.

금 요 찬 양 예 배

합심기도

말씀 : 김성배 목사 / 에베소서 1:23-2:7

하나님의 능력,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교제의 식탁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 역 / 행 사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삽시다.

1. **2021 년 표어**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해"
   주제 말씀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불어서 살아나게 하라"(에스겔 37:9)

2. **선교주일**이며 금주는 **선교주간** 입니다.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 전도자,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3. **일곱째 해 사역**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건강한 성도와 가정, 충성하는 사역과 교회,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범사가 되어 이웃과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 **Oikos 모임** 은혜롭고 건강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합시다.

5. **제직회** 다음주일 예배 후에 상반기 결산 제직회가 있습니다.

6 **CUMC 사역재계** 출입과 복도, comon areas 에서는 face mask 착용합니다. 서쪽 정문과 복도, 계단을 사용합니다.

7. **2세 신앙교육과 방학** 자녀들의 방학 중 생활,학업과 신앙 교육, 그리고 2세 사역자 청빙을 위해 기도합시다.

8. **사역자 일정** 김진숙 전도사는 2주간의 Conference 에 참여 중 입니다.

9. **성경 읽기** 교회 웹사이트에 매주 성경읽기/문제가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섬김이: 장경미 사모, 성경공부/박진성 집사, 웹사이트) 말씀 공부에 힘 더욱 씁시다.

10. **기도** 토요새벽 기도(오전 7시)에 참여합시다.

11. **치유, 회복, 나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7월의 사역 - **선교주일**(25) **선교 주간**(25-31)

♥7월 생일♥ **이광호**(14) **오정은**(14) **김태성**(15) **홍현근**(18) **구은강**(28)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화 & 목 / 이사야서)의 발전을 위해

예배섬김이

주일예배기도	7/18	7/25	8/1	8/8
	박진성집사	구은강집사	구 민집사	김훈태집사
주일헌금위원	7/18	7/25	8/1	8/8
	구 민집사/최선윤집사		홍현근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7월		8월	
	최내권집사		구 민집사	

말씀노트

말 씀 노 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 아모스 4:4-15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확실한 경고를 거급 주셨다. 흉년과 가뭄, 병충해와 전염병, 점점 그 신호의 강도는 더 강해졌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하고 사람들은 전쟁포로가 되어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영적인 잠을 잘 수 있고, 한 눈을 팔수도 있다. 다윗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영적인 잠에 빠진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은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바로 돌이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세이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 위해 신호를 주실 때, 즉각 알아차리고 있는가. 신앙생활에는 굴곡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성경을 읽으며 묵상 중에, 혹은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이 찔린다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찔림에 감사해야 한다. 아무리 찔러도 꼼짝 하지 않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더욱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 아모스 5:4-11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첫째,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며

둘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셋째, 징계나 책망을 깨달으며

넷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은 살길을 제시하신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으로 예배하자.

말씀요약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 / 아모스 5:4-11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경험하는 전화위복의 은혜가 있다.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훈육은 더욱 강해졌다. 이 위기를 해쳐나갈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였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벧엘과 브엘세바만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하는가?

첫째,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한다. 우상과 하나님, 세상과 천국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벧엘, 브엘세바와 길갈은 우상숭배의 장소로 변했다. 하나님도 섬기고, 보기 좋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우상들을 섬겼다. 하나님은 이런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우상숭배는 영적간음이다. 하나님의 자리를차지한 우리 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둘째, 정의를 실행해야한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한 필요충족 조건이다. 이스라엘은 이를 실행하지 않고 오히려 권력을 악용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혔다.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랑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공의와 정의로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불의와 부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셋째, 징계나 책망을 받을 때 순종하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장로들은 재판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잘못에 대한 꾸지람을 가볍게 생각했다. 좋은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길을 벗어날 때, 때로는 엄한 책망과 징계를 듣는다. 듣기 싫고 마음에 찔림 때, 받아들이고 깨우쳐 바른 길을 가야 그리스도인이다.

넷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야 한다. 당시 최강의 국력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이스라엘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였다. 가진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가 착취를 당하며 빈곤을 겪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보화를 하늘, 하나님 나라에 쌓는다. 나의 보물이 쌓인 그 곳에 나의 마음과 전 존재가 있음을 기억하자.

하나님을 찾으면 살리라라는 아모스의 선포는 오늘도 적용된다. 돌이키지 않아 징계와 심판을 마주하고 있지 않는가. 살길을 찾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 하나님은 진실된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며,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정의를 이행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자.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당신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바로 예배 드리라.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에봇을 입고
어린 제사장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 그런데
이 모습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비웃었다(삼하 6:16).
그런데 미갈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문제라기보다 문제를 삼기 위한 말들임이 느껴진다.

꼭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비관적으로
보일 뿐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 말이다.

사실 미갈에게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다윗이 미갈에게 하는 이야기를 통해 어느 정도 그 부부에게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네 아버지의 집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그렇게 예배한 거야."

다윗은 미갈의 아픈 곳을 찔러버렸다. 이뿐만 아니다.
미갈이 처음 다윗에게 끌렸던 이유가 무엇인가? 용사였기 때문이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영웅에 반했던 미갈은
아마도 제사장의 모습보다는 용사의 모습에 더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

여자든 남자든 서로에게 매력을 느껴 결혼을 한다.
그런데 그 매력을 느끼는 부분은 각자 다를 수 있다.
처음 둘이 만났을 때는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혹은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 어느 날, 내가 반했던 그 요소가
더 이상 내게 자극을 주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된다.
성격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살면서 알아가다 보니 싫은 점도 있다.
외모가 끌려서 사귀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 매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개그 코드가 마음에 들었는데 어느 순간 아재 개그가
되어버려 그때부터는 그냥 웃어주는 거지 진심으로 웃지 않는다.

어느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다른 것은 다 그렇게 변했는데,
그래서 매력도가 감소했는데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라면 우리의
결혼생활을 지탱해줄 만한 원동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서로를 길들이고 승부를 봐야 한다.**
다른 매력 요소가 다 쇠하여가도 신앙이 날로 깊어지고 자라간다면,
그 힘으로 가정이 튼튼하게 지켜진다.

사실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웜우드에게 이런 조언을 한다. 만약 인간이 지금 연애를 한다면 그것을말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대신 10년 후에 가정이 깨지도록 씨를 뿌려두라고 한다. 그 씨란 외모에 홀리고, 여행 가는 것을 낙으로 삼아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데 현혹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10년 후 혹은 20년 후 이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 가정도 끝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지탱해줄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그런데 한가지 감사한 것이 있다. **회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가정과 배우자를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나 자신을 먼저 세우고, 배우자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한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미갈이 보고 있던 남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남자였다. 그에 반해 미갈은 다른 것을 의식하는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6장 16-23절에서 다윗과 미갈의 대화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22절)라고 하면서 끝난다.

이 대화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식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미갈이 의식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다른 사람들이었다. 미갈의 그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있었다. 그런데 다윗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한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기가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예배의 참된 본질이 여기 있다. **부분적 참가가 아니라 총체적 경배**라는 것은 **내 시선과 관심과 생각이 분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내가 인정받기 원하는 대상도 하나님, 예배를 흠향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하나님만 나를 봐주시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 예배**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내 주변을 신경 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삼하 6장 22절

교회를 섬기는 분들

LEAD PASTOR **김성배 목사**
WORSHIP LEADER **박진성 집사**
BIBLE STUDY MINISTER **장영헌 전도사**
SUNDAY SCHOOL **김진숙 전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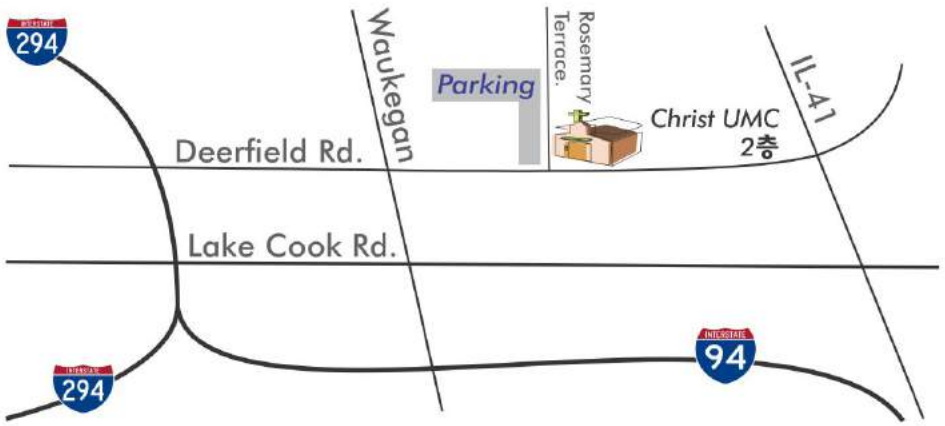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주 일 예 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주 일 학 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성 경 공 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섬기는 목회자 : 김성배 목사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